



LPG업계 주요 이슈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최근 업계관련 주요 일간지 및 전문지에 보도된 내용중 주요내용을 골라 게재한다.

택시 LPG면세카드 시행시기 ‘늦추자’ 시간 및 인력낭비 예방 위해 절차 간소화 요구

[가스산업신문]

택시 LPG특소세 면세카드 제도시행을 앞두고 카드사와 택시·충전 업계간 시각차이가 커지고 있다.

충전업계는 택시용 LPG면세카드가 아직 준비가 미흡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인 반면 카드사는 정부 등에서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5월부터 면세카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 소재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택시 유가보조금 및 유류 면세카드 충전소 설명회’가 지난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택시·충전업계는 “보너스카드까지 세번의 결제를 해야 하는데 시간낭비와 인력손실이 크다”라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신한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도 참여시켜 복수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시기를 두고서도 5월1일 시행은 준비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POS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2~3개월간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법인 택시의 경우 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를 사용해 외상거래를 하도록 하는 구조가 돼 충전소의 여신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컸다. 신한카드는 현행 1.5%인 충전소의 가맹점 수수료를 1.4%, 직승인 방식 적용시 1.2% 적용해 준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거래카드 사용 합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결제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면 외상거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말까지 택시용 LPG에 대한 면세가 이뤄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면세카드 발급과 관련된 제반 부작용과 각종 문제가 앞으로 15일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행시기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마스·라보 ‘부활 노래’

친환경 엔진 달고 1년3개월만에 생산 재개
하루 평균 100대 예약... 자영업자 대환영

[한국일보]

GM대우 창원공장 근로자들이 조립라인에서 생산이 재개된 라보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성주동의 GM대우 창원공장 조립라인. 300여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경상용차 조립에

여념이 없었다. 서민들과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발’ 역할을 해 온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 내수용 차량이 1일부터 생산 재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일반 상용차(1톤 트럭)의 절반 가격과 LPG를 연료로 하는 저렴한 유지비용으로 경상용차 시장을 개척했던 다마스와 라보는 1991년 8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15년 이상을 장수한 ‘숨은 베스트셀러’였다. 하지만 2006년 12월 26일 당시 환경부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면서 1년3개월 동안 내수용 생산을 전면 중



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GM대우 창원공장 총무팀의 이종헌 부장은 “라보와 다마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주고객층이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동 포장마차, 꽃배달 등 생계형 사업을 하던 서민들로부터 생산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환경기준에 적합한 엔진 개발에 성공한 GM대우가 생산 재개에 나서면서 창원공장이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다른 라인으로 흩어졌던 인력이 돌아오고, 협력업체로 떠났던 도급직원(외주업체 직원)들이 다시 모여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조립2라인(‘마티즈’ 조립라인) 못지않은 생산 열기를 뽐어내고 있다. 3월 1일부터 차량 예약을 받은 결과 40일 만에 하루 100대 꼴인 4,200대를 넘길 정도로 시장 반응도 뜨겁다.



하지만 아직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만한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해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 경기 부천시에서 이동형 반찬가게를 준비 중인 성명숙(49·여)씨는 “서민 입장에서선 값싸고 갓길 주차가 편한 경사용차가 가게나 마찬가지”라며 “하루라도 빨리 차를 받아서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니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홍정표 관리담당 상무는 “생산이 중단된 지난 1년3개월 동안 노사 모두 내수용 경사용차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회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제 생산을 재개한 만큼 올해 생산목표인 1만9,000대를 조기 달성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LPG하이브리드 ‘세제지원’

차액 보전 방식으로 구매 유도

[가스산업신문]

내년 7월로 양산시기가 앞당겨진 LPG하이브리드에 대해 보조금이 아니라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급 확대정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LPG하이브리드 차량이 양산돼 일반에게 보급될 경우 현행처럼 보조금 지



급방식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식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과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되고 있는 LPG하이브리드 차량은 약 3,500여대에 이른다. 일반차량과의 차액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일반차량에 비해 LPG하이브리드 가격을 300만원 높게 책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0% 수입에 의존하던 모터, 제어기, 배터리, 직류변환기 등 주요부품을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한 상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직 없으나 협의를 통해 세제지원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은 하이브리드 차량 시범보급사업시에만 적용하는 지원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동안 LPG차 3만3594대 증가

총 222만660대...유종별 점유율 13.4%

[한국가스신문]

올해 1분기 동안 LPG자동차는 3만3594대 증가해 총 222만660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에서 집계한 유종별 자동차등록대수에 따르면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LPG자동차는 222만660대를 기록해 휘발유 815만6148대(49.37%), 경유 614만4233대(37.19%)에 이어 13.4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LPG자동차의 경우 1~3월 동안 3만3594대(+1.54%)가 늘어났으며 경유차량은 5만6978대(+0.94%) 증가했다.

또한 유종별 점유율의 경우 12월에 비해 LPG자동차는 0.07%p 늘어난 반면 경유자동차는 0.02%, 휘발유자동차는 0.05% 각각 줄었다.

이처럼 유종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감을 비롯해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2차 에너지 세계개편의 효과가 대부분 반영된 상황에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에너지 세계개편이 진행될 당시에는 LPG자동차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됐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LPG자동차용 연료인 부탄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근에는 경유가격마저 치솟고 있어 향후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프로판 개별소비세 20원/kg 감면

경차 개별소비세는 5월부터 전액 환급

휘발유·경유-300원, LPG-161원

[가스산업신문]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감면되며 경차에 대한 유류세도 환급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현재 kg당 40원 부과되는 프로판 개별소비세가 20원 조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kg당 8.8원이 인하된다.

프로판을 비롯한 난방용 연료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인하폭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4월부터는 kg당 20원이 정상적으로 인하돼 소비자가격 인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월부터 택시용 LPG는 교육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금이 면세돼 환급받게 됐다.

또한 오는 5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경차에 대한 유류세도 환급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300원 환급되며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1,000cc미만의 경차는 동일세대 내 승용 또는 승합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로 제한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유가보조금 수령자와 법인소유차량은 제외된다.